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 눈먼 이에게 눈을!

여덟 번의 ‘참행복’ 선언(마태 5,3-12)에 바로 이어진 오늘 복음에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절로 두 번째 행복 선언이 연상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마태 5,4) ‘슬퍼하는 사람들’이란 표현 대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시는데, 저도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공 지향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요즘 세상의 주된 흐름에 반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축복해주신다는 말씀에 용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나인’이라는 마을에 들어서다가 외아들이 죽어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어느 과부의 안쓰러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과부에게 다가가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루카 7,11-17 참조). 동시에 교황님께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며 안아주시는 모습도 떠올려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교황님의 모습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빛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능력이란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약자를 돕고자 하는 ‘공감 능력’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인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은 예컨대 쓰러진 동료를 일

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코끼리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물들은 서로를 짓밟거나 자기 것만을 챙겨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공유하면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약자를 돕는 모습을 동물 사회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공감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크다면, 너무 지나친 걱정일까요? 적어도 교황님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 버립니다.”(『복음의 기쁨』 2항)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황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복음의 기쁨』 3항) 권고해줍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조금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상도4동성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9길 26

성라파엘사랑결성당(준) 상도4동성당 당고개순교성지(준)



상도4동성당은 2011년 8월 상도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상도4동성당은 2010년 9월 초 상도동성당에서 분가해 10월 성당 부지 매입에 관해 교구의 승인을 얻어 2011년 3월 성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상도4동성당의 주보는 로사리오의 모후이며, 2011년 10월에는 첫 입당 미사를 봉헌하였고, 2012년 4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